



우리가 물을 아껴야 하는 이유!

글_ 한승희 (abu0831)

어른들과 모든 사람들은 물을 아껴 써야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꼭 물을 아껴 써야할까? 그 이유는 많은 것이 있지만 몇 가지만 말해보자면,

1. 물이 없다면 우리는 많은 것에 제약을 받게 된다. 씻을 수도 없고, 물을 마실 수도 없다
2. 우리의 몸은 거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 물이 없으면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

이런 이유 말고도 더욱 많은 이유가 있고 또 우리나라는 이집트같이 물이 부족한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가 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집트 같은 나라처럼 물부족국가가 된다면 우리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토론을 통해 물에 대한 중요성과 물을 아껴 써야하는 당위성에 대해 깨달아야 할 것이다.



[Re]

- *김용희 : 물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귀하다는 생각을 깨달을 때 많이 만인이 함께 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 사람들의 의식을 먼저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 *박예은 : 우리 몸도 70%이상이 물이라는 것처럼 지구도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지않아요. 지구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좀더 큰마음과 생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 *heesuu93 : 나도 이제부터 물을 아껴 써야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몸에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고 계산만큼 물을 아껴 씹시다. 그리고 아껴 쓰지 않으면 우리 다 너무 힘들어 질 거예요. 그러니 물을 아껴 씹시다.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인 것은 다 아시죠? 우리 다함께 물을 아껴 쓰도록 노력해요. 그러면 여러분 더욱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물' 있을 때 잘해!!

글_ 백미선 (주부)

제 고향은 경기도 양평입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집 근처에 있던 내천은 정말로 서울사람들에게도 인기 있는 그런 깨끗하고 좋은 내천이었지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체육시간엔 그 내천에 모여서 수영도하고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던 길에서도 친구들과 흥흥적으로 입은 옷 그대로 수영하며 즐겁게 지내던 그곳이 지금은 어찌되었을까요?

내천 위쪽에서 내려 보낸 오물들로 인해 그 많던 달팽이를 찾아보기 힘들어졌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포크 레인이 내천바닥을 긁어내어서 그 예쁜 내천이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가서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씁쓸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에게도 그 예쁘고 깨끗한 내천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같이 물장구치며 물장자리도 잡고 달팽이도 잡으면서 따뜻한 돌 위에서 젖은 몸을 말리며 파란하늘을 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 내천에 풀만 무성히 자라있네요.

누구하나 찾아가지도 돌보지 않는 정말로 악취 나는 그런 내천이 되었답니다.

거우 20년이 지났을 뿐인데... ㅜ.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이런 모습의 고향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이 자연과 물 보존에 힘써주면 좋겠습니다.





약수터에서도 물 절약!

글 _ 손민정



집 뒤에 산이 있고 약수터가 몇 군데 있어서 이사 온 이래로 계속 약수를 떠다 먹고는 합니다. 대개 제가 갔을 때는 사람들이 항상 줄을 서 있기 때문에 별로 상관 없지만 가끔씩 밤이라든가 새벽에 가면 사람이 없어서 물이 그냥 흘러나오고 있는 걸 보고 한답니다. 물 양도 많은데 그냥 버리는 걸 보면 아깝더라고요. 근데 저희 할머니 댁에 갔다가 할머니가 약수 좀 떠오라 하셔서 갔더니 그 동네에서는 약수가 나오는 곳에 수도꼭지를 달았더군요. 그래서 사람이 있어서 약수를 틀 때는 꼭지를 열었다가 사람이 없을 때는 꼭지를 닫는 거죠. 그걸 보고 약수터마다 그걸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에서 나오는 약수는 돈을 내고 먹는 건 아니지만 이제 물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자원이잖아요. 그러니 각 지자체에서는 약수터마다 잠글 수 있는 수도꼭지를 달아서 귀한 물을 그냥 흘려버리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부미용에도 좋은 물절약 아이디어~

글 _ 송하림

저는요 세수하는 물도 아끼거든요.. 그래서 쌀뜨물이나 시금치 데친 물 같은 것으로 세수를 해요. 1년 된 저의 습관이구요, 한번 하고 나면 얼굴이 하얘지고 정말 보들보들해져요. ^^ 피부미용으로도 좋고 물도 아끼고 일석이조죠~ 우리 모두 물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_^



중수도의 활성화

글 _ 김상률



반갑습니다. 중수도 관련 현업 실무자로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현행 수도법상 중수도 설치 의무 대상인 1,500㎡/일 이상의 폐수를 방류하는 신/증설 공장에 대한 법 이행여부 관리 미흡으로 실행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환경부/지자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련기업에 공문발송 등으로 홍보가 필요합니다. 실제 중수도 시설 설치로 경제성(투자회수 0.5~2년)이 충분한 정수시설이 다양하게 개발된 현 상황에서 물 절약의 지름길이라 판단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요즘 날씨가 추웠잖아요~

글 _ 박진영

요즘 날씨가 추워서 수도관이 동파되는 걸 막기 위해 물을 조금씩 틀고 자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 "물 한 방울인데 뭐~" 이런 생각으로 받아놓지 않지만 이 물의 양이 엄청나요. 이 물을 그냥 버리지 말고 아래 대야를 받쳐 놓거나 물을 모아두었다가 아침에 사용하세요. 한 방울 한 방울씩 흘려버리는 것보다 화장실청소를 한번하고 버리고, 걸레를 한번 빨고 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제 봄이 찾아왔지만, 추운 겨울동안 그렇게 아깝게 버려졌을 물들이 안타까워서 한번 제안해 봅니다.





물사랑 일기

2005_3_29
물사랑에
관련된 책 읽기!

zlx17353 (초등학생) | 요즘 사람들은 물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 같다. 이 책을 꼭 읽고 물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바램이다. '미나미타의 붉은바다'를 추천한다.



2005_3_19
물의 날 글짓기

geuna827 (초등학생) | 오늘은 물의 날 글짓기를 학교에서 하였다. 나는 물사랑 홈페이지에서 조사한 걸로 글짓기를 썼다. 여기는 물의 대해 잘 나와 있었다. 그래서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 앞으로도 여기 홈페이지에서 많은 걸 알아가고 물을 사랑할 것이다.



2005_3_18
물을 사랑하자~!

jdj3497 (초등학생) | 나는 오늘 선생님의 추천에 의해서 물 사랑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이렇게 일기를 쓰게 되었다. 나는 이제 6학년 이지만 물을 아껴서 쓰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홈페이지를 가입하고 나선 많은 것을 알고 느껴서 물을 아껴 쓸 것이다. 난 요즘 물을 별로 아껴 쓰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많은 방법, 여태까지 배운 방법으로 물을 아껴 쓸 것이다. 난 사실 별로 물에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물부족국가이다. 그래서 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아껴 쓸 줄 알며 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럼 언젠간 우리도 물부족국가에서 벗어나겠지???

☆ 나의 물 아껴 쓰기 실천 계획 ☆

1. 양치한 물로 화분에 물주기
2. 걸레 뺀 물도 화분에 물주기
3. 목욕을 할 때 필요 없이 많은 양 쓰지 않기!

이 계획들 외에 앞으로도 많은 것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물 사랑 최고에 지킴이가 될 것이다.

2005_3_16
오랜만에
써 보는 일기

cy11228 (주부) | 일기라는 것을 무척 아니 아주 오랜만에 써보네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른 것은 아껴도 물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물이 조금씩 나오는 것에 답답해하고 물이 아주 세게 팔팔 쏟아져야 시원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좋을 것 같네요. 설거지를 하면서 물의 시원함에 스트레스 해소도 하는 게 아닐까 하구요, 이 사이트를 보면서 정말 아껴야겠다는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나부테!! 아주 적극적으로!!



2005_3_6
 변기 수조를
 절수형으로
 바꿔주세요!

csheng (기타) | 기존 변기를 절수형 변기나 대소변 구분형인 변기로 교체할 경우에는 50% 이상의 물을 아낄 수 있다고 하네요. 기존의 변기에 배해서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루에 50% 이상 절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집에도 절수형 변기로 바꿔보자고 얘기 해야겠네요!

2005_2_28
 난초와의 대화

mi3262 (주부) | 오늘 날씨가 좋아 그동안 머뭇거리던 화초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우선 한동안 추워서 뜸했던 화초물 주기를 했다. 어제저녁 혹 하수도가 동파될까 조금씩 흘러놓았던 물들은 모아서 화초에 주니 난초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 같아서 좋았다. 물도 아끼고 생명에게 고마운 물을 줄 수 있다니 일석이조라고 생각이 든다.



2005_2_6
 처음 쓰는
 물사랑 일기

aramis78 (대학생/대학원생) | 내가 이곳에 가입한지도 꽤 된 것 같다. 하지만, 자주 로그인하지 못하고 말로만 실천했지 실제 몸소 실천을 해가며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나의 일상의 주된 소일거리는 아버지에게 인터넷과 컴퓨터를 알려드리는 일인데 아버지에게 인터넷상에서 여러 사이트들을 알려드리다가 이곳을 알려드리게 되었다. 아버지는 농사꾼 출신으로 시대에 흐름에 밀려 서울로 오신 이농출신자였기 때문에 생활 곳곳에 절약과 자연에 대한 사랑이 늘 함께 하신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내 방에도 한가득의 숲이 천장에 주렁주렁 하다. 이런 아버지시기에 물사랑 사이트를 알려드리자, 너무나 좋아하셨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려달라면서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천진난만한 조카의 모습과도 같아 내 마음도 즐거웠다. 오늘 얻은 교훈은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아버지에게도 알려드렸으니, 나름대로 서투른 솜씨지만 아버지도 조금씩 나아지시는 실력으로 이곳에서 여러 사람들의 글과 이야기들을 접하실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에게 뒤지지 않는 아들이 되기 위해 더욱 분발해야겠다. 나도 농사꾼의 아들이니까 말이다.

2005_1_30
 처음 쓰는
 물사랑 일기

ciel103 (대학생/대학원생) | 가입한지는 꽤 됐지만 일기는 오늘 처음 써 본다. 생각해보니 물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서 그런지 물을 귀중하게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었다. 가끔 단수가 되거나 할 때 '아~ 물이 필요해.' 하고 느끼곤 했었다. 그래도 이 물사랑 홈페이지를 알고부턴 조금씩 물을 생각해볼게 된 것 같다. 오늘도 세수할 때 세면대에 물 받아서 씻고, 양치질 할 때도 컵에 받아서 쓰고, 마실 물도 먹을 만큼만 조금씩 따라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실천해나간다면 언젠가는 그 조금 조금이 모여 크게 물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을까? ☺